

# 근로자를 위한 마음!

## 비봉이앤지의 안전과 복지

최근 건축물은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에서 벗어나 미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예술품이다. 고급스럽고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요즘 건축물에는 유리가 주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도 대형 유리는 그 고풍스러움을 더해준다. 국내 최고의 유리 가공업체인 비봉이앤지는 8미터가 넘는 대형 유리까지 특수 제작함에 있어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오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 박창욱 계장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 중소기업의 특성을 넘어서

유리의 원자재가 입고되면 고객의 주문한 크기에 따라 재단하고, 연마공정을 거쳐 홀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때 발생한 이물질들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세척공정이 끝나면 760도의 열에 의한 열처리 공정으로 특수유리가 생산된다.

대형 유리를 가공·생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깨진 유리에 의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세척공정에서는 전기설비와 물이 만나면서 감전 등의 전기재해도 도사리고 있고,

협소한 작업공간에 따른 충돌, 전도, 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 위험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비봉이앤지의 환경이다.

그러나 비봉이앤지는 2003년을 기점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년 10월 무재해 2배수 달성이라는 결과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창욱 계장은 “50인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안전과 더불어 복지는 중소기업의 선을 뛰어넘어 앞서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라고 말한다.





편안해야 안전합니다.

2003년에 용인에서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비봉이엔지는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형 유리 원자재를 운반하는 흡입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공정마다 연결하는 킷핑테이블은 처음보는 형태의 작업대로 길이조절이 가능하며, 바퀴가 달려 있어 근로자가 손쉽게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설비이다.

이 현장에만 있을 법한 작업대, 안전시설은 기술지원팀에서 현장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작업이 편하면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결국 현장이 안전해집니다.”

이처럼 비봉이엔지가 추구하는 안전은 편안함에서 시작된다.

외부기관과 함께 비봉이엔지 근로자 지키기

비봉이엔지에는 자체 안전을 담당하는 정준오 팀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와 비봉이엔지의 안전을 설계하고 지

### 3정 5S의 재도약으로 무재해 이룩

원왕희 공장장님은 금년 주요업무로 3정 5S 재도약을 발표했습니다. 3정 5S는 안전을 비롯해 품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자의 안전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각 팀에서는 벌써부터 3정 5S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이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 정준오 팀장

우리는 중소기업이지만 산재의 온산으로 낙인찍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안전과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협회와 함께 안전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현장에서도 안전이 체계적으로 잡히려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정도는 안전협회와 함께 현장을 순찰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도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길입니다.

켜간다.

“우리는 우리 것만 보게되어 안전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협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빠른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전협회와 비봉이엔지가 안전을 함께 지켜온 이유이다.

매년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직원을 3일간 안전교육을 비롯해 소양교육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열정은 대기업 못지않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근로자가 많은 이곳, 그렇다보니 회사도 젊어 동종업계에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냉난방시설이 완벽한 기숙사와 헬스장, PC방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주 5일 근무제는 최고경영자가 근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최종덕 기자〉